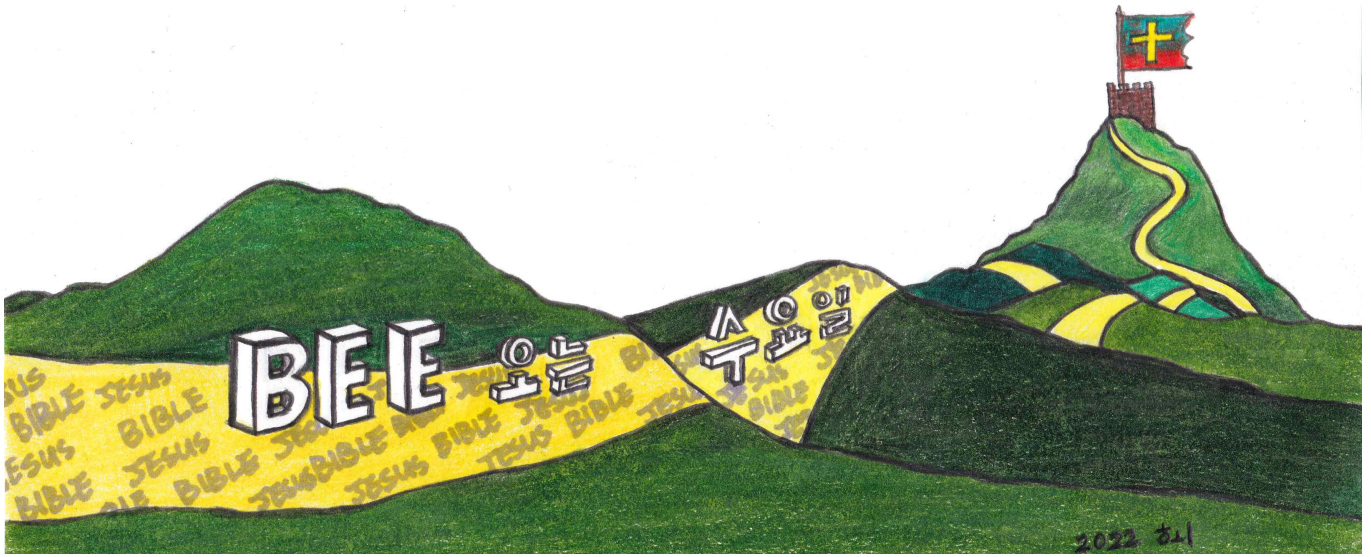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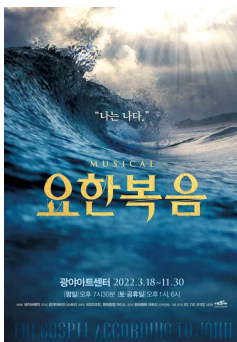




스물여섯번째 이야기

소망을 품은 질그릇

[그리스도인 문화기행② 뮤지컬 요한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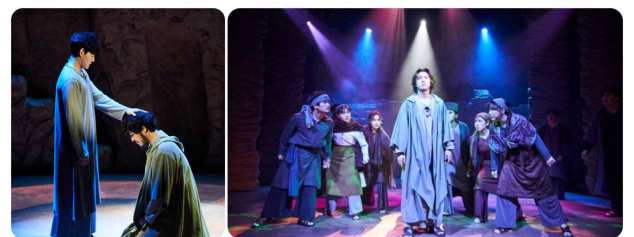


뮤지컬 <요한복음>으로 접한 예수님 이야기는 신선했다. 물론, 예수님의 배역이 직접 등장하는 영상 작품들(주로 영화)은 어려서부터 많이 접해왔다. 흑백 TV로 처음 봤었던 ‘왕중왕(King of Kings, 1961)’을 비롯해 거의 20년

전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The Christ, 2004)’등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상물들은 의외로 많이 남아있다. 이들을 애써 찾아가며 열심히 시청하고 감상하기도 했었는데 작품들의 숫자만큼 감동은 더해지지 않았고 다시 보고픈 영상들은 한두 개 정도뿐인 아쉬움이 늘 있었다. 지난달 따로 시간을 내어 뮤지컬 <요한복음>을 감상하게 되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은혜와 감동이 있었고 글을 쓰는 지금도 그 여운이 감돌고 있다.

극단 ‘광야’의 창작뮤지컬 <요한복음>은 제목 그대로 사복음서 중의 하나인 ‘요한복음’을 2시간 30분으로 압축하여 보여준다. 복음의 진수가 숨 막히는 템포로 펼쳐지는데도 충분한 내용전달과 각인이 되는 작품이다. 예수님의 7가지 선언(에고 에이미, Εγώ ειμι...생명의 빵,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이 익숙한 가사와 멜로디로 선포 될 때는 반갑기도 하고 감동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뮤지컬만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오감으로 느끼는 현장감은 어떤 영상 미디어도 따라올 수 없는 생생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영광스럽고도 당당하게 표현된 십자가 장면은 이 작품의 의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예수님의 삶과 숨결이 직접 느껴지는 듯하고, 상황마다 직접 그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제작진들은 솔직히 고백한다. “저희의 초점은 성경으로 공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연’이라는 질그릇에 ‘요한복음’이라는 보배를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모든 설교와 주석은 말씀을 말씀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실패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떤 틀에 넣어 보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떤 틀에 넣어 전하고자

했던 우리의 실패는 놀랍게도 기쁨과 소망을 일으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성경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쁨, 성경의 절대 권위를 경험하는 통렬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인 뮤지컬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 특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생명을 다해 요한복음을 평생 읽게 되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공연을, 요한복음을 읽으려는, 읽게 하려는 작은 몸부림으로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겸손한 고백은 열과 성으로 채워진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다.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이 가을, 뮤지컬 <요한복음>을 통해 얼어붙은 심령이 성령의 불길로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장소: 광야아트센터(강남구 선릉로)

일시: 2022.3.18.~11.30 (화~금)19:30 (토~일)13:00, 18:00

티켓 가격: 45,000원

러닝타임: 150분

[글쓴이 김종영 목사]

2008년도부터 BEE 토요기도모임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중, 늦깎이 나이(50세)에 햇불트리니티 신대원에 입학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현재 온누리교회 서빙고 사랑부(장애인 예배)를 담당(파트)하고 있으며 'BEE오는 수요일' 편집팀으로 섬기고 있다.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모놀로그 in 바이블
요한복음

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06. 헤롯 대왕
마태복음 2:1~18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
동방의 현자들과
수행원 수십 명이 도성에 들어와
외교담당 장관에게 밝힌
방문 사유 때문이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상상치 못한 답변을 듣고
관자놀이애 소름이 돋았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모놀로그 in 바이블

예들 빚줄인 내가
피땀으로 거머쥔 이 유대 왕관을
도로 잇아갈
유대 혈통의 후계자가
태어난 것일까?



모놀로그 in 바이블

황급히 성전에 사람을 보내
유대교 학자들을 불러들였다.

너희 경전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단다냐 추궁하니
미가라는 예언자가
베들레헴을 정확히
지목했다고 했다.



나는 대범한 척 껌껌 웃으며
박사들을 배웅했고,
그들이 아기의 주소를 듣고 돌아오길
칼을 갈며 기다렸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유대인의 새 왕?
흥,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이 나라 영토를
너희 다윗 왕 때만큼
넓혀 놓은 게 나야!
너희 종교를 위해
확리한 성전을 건축해 준 것도
나라고!



모놀로그 in 바이블

아름의 후손을
예서가 다스렸다는
역사 한 줄을 남기려고
내가 간 쓸개 다 꺼내
로마에 꼬리치고 얻은 이 자리다!
내 영토를 물려받은 적자가
건재하거늘, 어딜 감히!



모놀로그 in 바이블

넌 달이 흘렀다.
감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뭐, 괜찮다.
별자리 예언 따위에
연연하지 않을 생각이다.



반역의 짙은,
반역자가 가장 연약할 때
베어내면 된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모놀로그 in 바이블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g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쫓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2022년도 하반기 FTS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말씀에 헌신한 예비 인도자 15명을 축복하며 은혜와 나눔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3. 10월 29일(토) 청주, OBA 수련회! 선교 역사의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에 참여하는 OBA 가족을 축복하며, 예배와 풍성한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선교사님들이 헌신을 만나는 시간이 되세요
4. 찬양과 악기로 토요 기도모임 예배를 함께 섬길 팀원을 모집합니다! 기도 테이블 식구, 순식구 중에서 BEE를 하신 분, BEE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 토요기도 모임 참석자 중(예정 포함)에서 싱어, 인도자를 모집합니다.